



죄책감도 알려줘야 하는 세상! 10대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건 ‘건강한 어른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일명 n번방, 박사방 사건은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비밀 SNS상에 공유·판매한 사건으로, 확인된 피해자만 100명이 넘는다고 한다. 이 악랄한 성범죄에도 10대 청소년이 가담해 더 큰 충격을 주었다. 성 착취물 동영상을 유포하고, 회원들을 모집한 비밀 SNS 운영진 중에는 겨우 16살이 된 학생도 있다고 한다. 이렇듯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는 이때, 10대들의 성폭력 범죄 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글 손경이(관계교육연구소 대표)

점점 더 심각해지는 청소년 성범죄

스마트폰 보급과 SNS의 활발한 사용으로 10대들의 불법촬영 및 성희롱 단독방 등 디지털 성 착취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를 한 번쯤은 보았을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일명 ‘몰카 범죄’로 입건된 19세 미만 피의자가 2011년 87명에서 2016년 601명으로 무려 5년 사이 7배나 증가했다고 한다. 더 안타까운 건 대부분 피해자는 학교 친구들로, 피해자는 가해자를 매일 봐야 하는 현실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다수의 방관자가 많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가해 부모(양육자)들은 자녀의 이중인격적인 메신저나 SNS 내용을 보고 놀란다. “카톡 내용의 그 말을 우리 애가 한 것이 맞는지요?”, “저 말을 진짜 우리 애가 했다는 겁니까?” 등 사건을 보고 놀라고 메신저와 동영상을 보고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인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가해자인 청소년들이 이런 성범죄를 “친구들끼리 재미 삼아 한 일이에요”, “저는 그냥 보기만 했는데요?”, “우리끼리 한 말도 죄가 되나요?”, “그냥 초대받아서 그런 일이 있는 줄 몰랐어요” 등으로 회피하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일산에 있는 중학교 상담교사를 시작으로 전국 순회 전문강사로 활동하던 중 최근 아들과의 유튜브로 인해 각종 방송에 출연하며 성 고충 자문위원으로 조사·징계 자문을 하게 됐다. 활동 중 정말 놀랐던 일은 1~2년 전부터 초등학교생들이 유튜브에 엄마의 몰카 사진이나

샤워 장면 등을 올린다는 것이었다. ‘엄마 몰카’라는 제목에 ‘좋아요’와 댓글이 많은 것에 더 놀랐다. 이 아이들의 문제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영상 활용법을 알게 되다 보니 올바르게 못한 영상에 자주 노출되면서 이상한 콘텐츠를 마구잡이로 보고 올리는 행태의 범죄를 저지른다는 데 있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것이 범죄라는 인식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 몰카가 아닌 불법 촬영으로 인한 범죄다.

이러한 사건들을 보고 들으며 느낀 점은 ‘죄책감도 배워야 한다’는 것이었다. 피해 학생에 대한 감정과 상황에 대한 이해를 통해 아이들에게 죄책감을 자세히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체벌보다도 죄책감을 알려야 되는 세상이다.

올바르고 명확한 성교육이 필요한 때

더욱 잔혹해진 10대들이 성범죄의 유혹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선 이들이 올바른 성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 해답은 명확한 성교육의 실행에 있다. 어릴 때부터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해나가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성교육에도 21세기 교육 방향이 있다.

첫째, 가해자 예방 교육(지금까지는 ‘피해자 예방 교육 예방’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둘째, 관계 존중(청소년 연애에 있어 서로가 5:5의 감정 교류를 통해 ‘상호존중’하는 것)

셋째, (성적) 자기 결정권(유아 때부터 자기 결정권을 연습해야 10대부터 성적 자기 결정권의 능력이 발휘된다.)

다시는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청소년뿐 아니라 어른들도 반드시 올바른 성 관념을 가져야 한다. 경기도 내 성범죄율은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 고양시 어른들과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 더불어 ‘상호동의’ 개념을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손잡기, 포옹, 뽀뽀 등의 스킨십을 할 때는 5:5 동의 구하기, 상대방의 감정 맥락 고려하기, 욕구 감정 조절하기 등의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정에서부터 교육했으면 한다. 자녀가 변화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기에 만화, 노래, 게임, 뉴스, 영화, 드라마를 통해 질문하고 답하며 함께 지식과 지혜를 배우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부모(양육자)부터 희로애락의 표현을 해야 자녀도 감정표현을 할 수 있게 된다. 언제든지 슬프거나, 좋거나, 화나거나, 외로울 때 항상 부모를 먼저 떠올리며 도움을 요청하도록 자녀에게 부탁하시길 바란다. 부모는 자녀가 도움을 요청할 때 도움을 주어야 하는 사람이므로, 아이들을 위해 어른들이 먼저 21세기 성교육을 배워야 한다. 이를 통해 부정적 성 지식보다 ‘긍정적 성 지식’을 먼저 알게 해야 할 것이다.

검은 유혹에 빠진 아이들을 구하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몫이라 생각한다. 특히, 가정폭력과 성폭력 예방은 가정교육으로부터 시작된다. 성을 배운다는 것은 ‘존중과 감정의 대화’를 배우는 일임을 어른들이 먼저 알게 해주어야 할 것이다.